

무주서 만나는 다양한 석채화 매력

세계적 천년화가 김기철 화백 개인전 6월 4일까지 개최

세계적인 천년화가 김기철 화백의 개인전이 오는 6월 4일까지 무주군 무주읍 전통공예문화촌 내 김기철 보석화공방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2020년 한국화 명인, 2021년 석채화 명인에 이름을 올린 김기철 화백이 40여 년간 이어진 자신의 작품 활동을 기념하고 코로나19로 소원해졌던 관람객과의 소통과 교감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탄생시킨 석채화 60여 점을 선보인다.

돌가투를 입고 천년화로 탄생한 '기도하는 소녀'를 비롯해 '복단꽃', '호랑이의 평안', '이른 아침 호수의 기러기', '수건춤' 등이 석채화의 매력을 보여준다.

김기철 화백은 "연필과 물감대신 천연점착제



김기철 화백 석채화 - 기러기

와 돌가투로 그리고 채색을 하는 석채화가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어 해마다 전시회로 소

통을 했었다"면서 "그마저도 코로나19로 힘들어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다시 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에 걸린 작품들은 그간의 그리움을 모두 담아낸 것"이라며 "볼펜이 천연 보석화로 탄생한 그림을 보시면서 누구라도 저마다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기철 화백은 2012년부터 무주 전통공예문화촌 공예 공방에 입주해 11년 동안 보석화공방을 운영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재료가 되는 돌가투는 작가가 직접 무주의 강에서 채집한 돌을 갈아 만든다.

대한민국 황실공예 초대전을 비롯한 호주 빈센트 갤러리 초대전 등 국내·외 다수의 전시회에 초대돼 석채화를 알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최우수상, 국제 현대미술개년 대상 등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해외 태권도인, 태권도원 방문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태권도 성지 찾아 수련하는 해외 사범·수련생·체험자 급증

지난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태권도원을 찾는 해외 사범과 제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태권도 성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18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ATA(미국 태권도협회) 한국 방문단이 태권도원을 찾았다. 선리 회장과 이순호 명예총재, 이말건 총재를 포함한 40여 명의 사범들은 단체 수련과 승단 심사를 비롯해 명인관 내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현액 공간에 마련된 고이행웅 ATA 초대 회장의 흉상 참배를 마쳤다. 또한,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을 주제로 이규형 전)국기원장, 황인홍 무주군수, 최재춘 김운용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이숙경 전주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독일 뮌헨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승석 사범(재독대한태권도사범협회



독일 유승석 사범 제자들이 태권도원 전통무예수련장에서 품새 수련을 하고 있다.

회장)이 제자 13명과 태권도원을 찾아 전통무예수련과 자기방어, 전자호구 및 태권복 체험

등 수련했고, 스위스 최용덕 태권도장 20여 명도 태권도원에서 품새 수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미국 보스턴 US Taekwondo Center에서도 40여 명이 수련과 힐링태권체조를, 호원대학교 유학생 130명도 태권도원을 찾았다.

현재까지 미국 등 미주권 7개, 스웨덴 등 유럽권 6개를 포함한 해외 16개 태권도 단체와 도장에서 6월 이후 태권도원 방문을 확정했다. 특히 태권도원에서 7월에 열리는 '2023세계태권도그랑프리챌린지'와 8월에 있을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제1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의 국제 태권도 대회와 8월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방문도 예정되어 있는 등 태권도원을 찾는 외국인 수련생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영환 이사장은 "올해 들어 태권도원에 오는 해외 사범님들과 수련생들이 증가하며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태권도원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시설 관리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태권도인들도 꼭 다녀가야 할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제2차 지역 사회공헌활동 펼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5일 부안군 해탈마루에서 제2차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지역 사회공헌활동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연배)가 주관해 지역 내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사회공헌 부스 운영과 밀반찬 나눔 활동으로 전개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내 기관 및 기업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 총 1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경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9명이 참여해 증명사진 '즉석 인화 사진관' 운영을 통해 자주 접하기 힘든 증명사진 촬영의 경험을 제공하고, 자리에서 바로 사진을 인화해 추억을 선물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지난 23일 (사)전라북도자

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지역 상생의 건강한 조지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사적 활동의 의지 표명으로 추진됐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공공선의 의미가 날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관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제93회 춘향제가 25일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이 올랐다.

춘향제향 통해 춘향제 가치 높인다

'제93회 춘향제' 춘향제향 시작으로 화려한 막 올라

제93회 춘향제가 25일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이 올랐다.

축제의 전통성과 춘향제의 원형정신을 되새기는 이번 제향은 여성 제관이 진행을 맡아 점시례, 분향례, 전폐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 분축례 등 모두 9가지 전통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춘향제의 상징이자 근간이 되는 '춘향제향'은 1931년 일제강점기에 춘향사당을 짓고 민족의식 고취와 열녀 춘향의 절개와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시작된 전통 의식으로, 단오날인 음력 5월 5일에 제를 올린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춘향사당에서

남원 권번이 첫 제를 올린 후 90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성이 제관을 맡아 진행하는 유일한 행사이다.

춘향제향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춘향의 정신과 국민의 안전을 기원해 온 축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전통 제례의식이자, 시대정신을 반영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제향을 통해 춘향제의 정통성을 정립하고 격조있는 제례의식을 통해 춘향제의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26~27일 '가족영화제'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26~27일 이틀간 오후 7시 30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야외 마당에서 '가족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가족영화제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로, 26일 배우들의 명품 연기와 함께 웃음과 감동이 있는 '개를 흠뻑하는 완벽한 방법'과, 27일 뮤지컬 만화영화 '모아나'까지 두 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특히 즐겁고 편안한 관람을 위한 돗자리와 의자, 그리고 팝콘이 제공되며, 영화 상영 전인 오후 7시부터는 국립무형유산원 캐릭터 달과 함께 인증사진을 찍어 개인 사물관계망서 비스(SNS)에 게시를 올리거나, 국립무형유산원과 무형유산에 관한 문제(퀴즈) 맞추기 행사도 마련했다.

가족영화제는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임실군,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춤추는 상쇠-동행' 개막

임실군이 지원하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춤추는 상쇠-동행' 공연이 오는 27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필봉문화촌 취락원에서 펼쳐진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에서 주관하는 춤추는 상쇠 시리즈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옥자원 야간상설 공모사업에 12년 연속 선정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임실필봉농악을 바탕으로 임실의 지역문화 및 환경자

원을 활용한 전통연희극으로써 전북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춤추는 상쇠 열두번째 이야기 '동행'은 전통문화의 격동기인 1960년대 배경으로 필봉에서 마을굿을 지키고 살던 양상쇠와 그의 아들 봉필이가 마을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전통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전통연희극으로써 감동과 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진충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